

국어 진행상의 형식과 특징*

구종남(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2.3. 두 가지 진행상의 문법화와 상
적 특징 |
| 2. 국어 진행상의 형식과 특징 | 2.4. 두 진행상 형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 |
| 2.1. 국어 진행상의 유형과 진행상의
특징 | 3. 결론 |
| 2.2. '-고 있다'와 '-는 중이다'의 차이 | |

1. 서론1)

상(aspect)은 상황의 내적 시간 구조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Comrie 1976 : 3)로 언어마다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¹⁾ 상 유형의 하나인 진행상은 비상태성(Non stativity)과 연속성(Continuousness)의 결합으로 동작이 계속됨(Ongoingness)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Comrie 1976 : 12). 국어에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종결어미, 접속어미, 문법화된 우언적 구성, 통사적 구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최현배 1937 고영근 2004). 그러나 진행의 의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진행상의 문법 범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2012020970).

1) Jespersen(1924 : 286)에서는 상이 동사 자체의 통상적 의미,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동사의 의미, 파생 접사, 시제 형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

들 모두가 문법 범주로서의 진행상 형식을 이룬다고 할 수는 없다. 국어에서는 우연적 구성인 ‘-고 있다’, ‘-는 중이다’, ‘-어 가/오다’가 전형적 진행상의 문법 범주로 간주되어 왔다. 전형적 진행상 범주로 간주되는 이들 형식들도 진행이 비상태적 사건이 계속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두 형식 모두 진행상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이들도 진행상 표현에서 각기 다른 특성과 제약 양상을 보인다.

문법 범주로서 국어의 진행상 형식은 모두 우연적 구성으로서, 문법화에 의해 진행상의 범주 형식이 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어떤 문법적 원리와 방식에 의해 문법화가 이루어졌는지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미진하며, 이들 형식의 구성 요소가 진행상 표현의 의미 특성에 어떻게 드러나며 여러 제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크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는다. 문법 범주로서 국어 진행상 형식에 대해 논의하고 전형적인 진행상 형식인 ‘-고 있다’와 ‘-는 중이다’의 진행상과 관련된 여러 차이점을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이들 형식의 문법화 과정을 논의하고 이들의 차이가 문법화된 형식의 구성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에서 기인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다른 하나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어에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는다’, ‘-고 있다’, ‘-는 중이다’, ‘-어 가/오다’ 등이 진행상의 문법 범주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이들 중 ‘-고 있다’, ‘-는 중이다’가 문법 범주로서 전형적인 진행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진행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 두 진행상 형식이 어떤 상적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고 이들 형식이 진행상의 문법 범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본고에서는 ‘-고 있다’는 기원적으로 ‘-고 e 있다’와 같은 후행절 주어와 영 주어로 나타나는 접속문 구조에서 V1이 사태의 지속 상태적 속성을 나타내는 ‘있다’에 대해 양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황의 중복에 의해 진행상 형식으로 문법화되었고, ‘-는 중이다’는 ‘가운데’를 의미하는 ‘中’에 포함되는 상황에 주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원리에 의해 문법화 되었음을 주장하고 이들이 조

동사 발달의 사건 도식(schema)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님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들 진행상 형식의 문법화 원리를 밝힘으로써 ‘-는 중이다’와 ‘-고 있다’가 보이는 여러 가지 차이점도 문법화된 이들 형식의 구성 요소의 어원적 의미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2. 국어 진행상의 형식과 특징

2.1. 국어 진행상의 유형과 진행상의 특징

2.1.1. 국어의 진행상 유형

진행상은 사건이 계속됨을 나타내므로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에 시간의 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²⁾ 이는 진행상이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행상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영근 2006 참고).



I : 시작점 F : 끝점 // // : 관점에 의해 초점 받는 부분

그림에서 보듯이 진행상은 상황의 내부 구조를 보여 주며 동작이 과정 중에 있어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미완상이다.³⁾ 따라서 미완상적 특징을

2) 서정수(1976 : 104)에서는 진행상의 특징으로 동작이나 과정의 변화 자체가 일정 시점에서 계속됨을 드러내고, 동작이나 변화의 기간(동안)이 시간적 한계성을 가지며, 사건이 미완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3) 완전상은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국면들에 대한 구분 없이 상황을 단일한 전체로 보는 것을 가리키는 데 반해 미완상은 상황 내부에 근본적인 주의를 기울인

가진 동사와 시간의 폭을 설정할 수 없는 동사는 진행상이 제약된다(이 문제는 2.1.2.에서 후술됨).

진행상의 개념 적용 대상을 좁혀서 보면 국어의 진행상은 '-는다', '-고 있다', '-는 중이다', '-어 가/오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는다'가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주기능이 진행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진행을 나타낼 때 시제에서 제약을 받는다. 즉, 현재 시제의 경우만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다. 또 인식 양태 요소와도 통합이 불가능하다.

- (1) 가. 이리가 밥을 *먹었다/먹고 있었다/먹는 중이었다.
나. 희영이가 빨래를 *널뒀다/널고 있더라/너는 중이더라.

위에서 보듯이 '-는다'는 '-고 있다', '-는 중이다'와 달리 과거 시제에서 진행을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더'와 같은 인식 양태 요소와도 통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는다'가 진행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따라서 이의 진행상 표시 기능은 부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⁴⁾

'가/오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 있다', '-는 중이다'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자는 우선 동사와의 결합에서 후자와 다른 면을 보인다.

- (2) 산이 점점 푸르러 온다/간다/*푸르고 있다/*푸르는 중이다.
(3)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몰라 *온다/*간다/모르고 있다/?모르는 중이다.

(2)에서 보듯이 '-고 있다', '-는 중이다'와는 달리 '가/오다'는 형용사와 통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3)에서 보듯이 '가/오다'는 상태성 동사 '모르다'와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진행상 형식과 차이가 있다.

또한 다음에서 보듯이 '가/오다'는 '-고 있다', '-는 중이다'와 특정한 시점에서 동작의 성립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지속의 양상에서도 이들 형식과

다(Comrie 1976 : 16).

4) 이지양(1982 : 73), 서정수(1976 : 93)에서도 '-는다'를 진행형 형식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는다'의 시상 형태로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서정수(1976 : 93) 참고.

는 다르다.5)

- (4) 가. 진호는 12시 정각에 신문을 읽어 *왔다/*갔다/읽고 있었다/읽는 중이었다.
 나. 이로는 꽃을 그려 온다/간다/그리고 있다/ 그리는 중이다.

(4가)에서 보듯이 ‘가/오다’는 ‘-고 있다’, ‘-는 중이다’와 달리 일정 시점에서 진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4나)는 이들 형식이 의미 기능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가/오다’는 시간의 폭에서 그 흐름을 심리적으로 연속주사(scan)함으로써 지속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고 있다’, ‘-는 중이다’는 이런 의미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가/오다’는 시간의 흐름의 방향과 관련하여 직시의 중심 개념이 개입되며 이들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고 있다’, ‘-는 중이다’는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나 ‘가/오다’는 그렇지 못하다.

- (5) 선희가 빨간 옷을 *입어 간다/입고 있다/입는 중이다.
 (결과상태의 의미로)

(5)에서 보듯이 ‘-고 있다’, ‘-는 중이다’는 ‘가/오다’와는 달리 주어가 옷을 입는 동작을 수행한 뒤의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가/오다’는 전형적인 진행상 형식 ‘-고 있다’, ‘-는 중이다’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6) 따라

5) 일정 시점에서 ‘고 있다’, ‘-는 중이다’가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진행상이 시폭을 전제한다는 것과 모순되는 듯하나 시폭이 시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다. ‘읽다’라는 동사가 과정을 포함하는 동사이므로 12시를 전후한 시간에 읽는 동작이 진행된다고 볼 때 12시 정각은 그 진행 시간의 분포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Palmer 1974 : 57 참고). 진행상이 일정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은 순간 동사가 진행상이 불가능한 경우와 다르다. 순간동사는 처음부터 진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6) ‘오/가다’는 기본적으로 지속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직시적 성격

서 본고에서는 ‘-고 있다’, ‘-는 중이다’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1.2. 진행상의 특징

진행상은 상황의 내부 구조를 보는 방식으로서 상황 내부에 과정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관련된 문제에서 성립상의 제약이 따른다. 진행상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상태성 동사와만 통합될 수 있다.

- (6) 가. *이로는 미자를 알고 있다/아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로)
나. *주회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지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로)
다. *고래는 포유동물에 속하고 있다/중이다.

‘알다’, ‘가지다’, ‘속하다’는 상태성 동사들이다. 이들이 진행상에서 제약되는 것은⁷⁾ 진행상은 미완상인바, 이 경우 미완적인 상태를 다시 미완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김종도, 나익주 외 역 2003 : 343 참고).

순간 동사들도 진행에서 제약을 받는다.

- (7) 가. ??저 풍선이 터지고 있다/터지는 중이다.
나. ??선원들이 섬을 발견하고 있다/발견하는 중이다.

‘터지다’와 ‘발견하다’는 과정이 없는 순간(semelfactive) 동사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보듯이 진행형에서 제약을 받는다.⁸⁾

과 상적 기능에 대해서는 구종남(2011) 참고.

- 7) ‘-고 있다’가 진행이 아니라 지속으로 해석되는 경우 ‘알다’, ‘가지다’와 통합될 수 있다. ‘-고 있다’는 진행뿐 아니라 지속, 반복, 습관, 결과상태 등 다양한 의미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8) 논리적으로 진행상은 시작점과 종결점이 동시적이어서 시간의 내부 구조가 점으로 나타나 과정이 없는 성취(achievement) 동사와 공기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성취 동사는 ‘기차가 도착하고 있다/도착하는 중이다’에서 보듯이 진행형 표현과 공기할 수 있다. 사실 이 경우 시간 구조는 성취 상황의 내부 구조에서 일

진행상은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상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 부사의 제약을 받는다. 시간 부사어 중 의미 있는 시간 폭을 설정하기 어려운 부사어는 진행상이 제약된다.

- (8) 가. *철수가 그 책을 순간적으로 읽고 있다/ 읽는 중이다.
나. *미자가 0.1초 동안 하늘을 보고 있다/있는 중이다.

‘순간적으로’는 책을 읽는 과정을 드러내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며 ‘0.1초 동안’도 하늘을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이들이 진행상 구문에 쓰이면 비문이 된다.

2.2. ‘-고 있다’와 ‘-는 중이다’의 차이

‘-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으나 이들은 그 형식이 다른 만큼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이제 먼저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고 있다’, ‘-는 중이다’의 문법화에 대해 논의한 뒤 이들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문장 종결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 (9) 가. 이 책을 읽고 있어라/있자/있으마.
나. *이 책을 읽는 중이어라/중이자/중이마.

평서법과 의문법에서는 두 진행형 형식이 모두 가능하나 ‘-는 중이다’는 문장 종결법 중에서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이 불가능하다. 평서형, 의문형과 다른 세 가지 문장 종결형의 차이는 평서법과 의문법은 화자의 의지와 무관한 객관 세계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문장 종결법인 데 반해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은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문장 종결법으로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장차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장 종결법의 사용에

서 두 진행형 형식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부사와의 통합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있다.

(10) 가. 주희는 갑자기 머리를 감고 있다/??감는 중이다.

나. 성호가 끝없이 진주를 괴롭히고 있다/??괴롭히는 중이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시간 부사 ‘끝없이’, ‘갑자기’는 ‘-고 있다’ 구문에서는 가능하나 ‘-는 중이다’ 구문에서는 쓰일 수 없다. 다른 시간 부사를 보기로 한다.

(11) 누나가 책을 천천히/빨리 읽고 있다/읽는 중이다.

위 예문에서 ‘천천히’, ‘빨리’도 시간 부사이지만 이들은 예문에서 보듯이 두 진행형 모두에서 쓰일 수 있다. 여기서 ‘갑자기/끝없이’와 ‘천천히/빨리’는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이들 진행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가 문제다. (11)에서 ‘천천히/빨리’는 진행 상황의 내부 양상을 나타낸다. 즉, ‘천천히/빨리 읽음’이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10)에서 ‘갑자기’는 진행 상황의 내부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진행 상황의 외부에 관련된다. 다시 말해 진행 중인 ‘머리를 감는 행위’에 진입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다. 또한 ‘끝없이’는 진행 상황의 내부 시간대에 관여하지만 진행의 내부 시간대가 무한히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부사의 수식이 상황의 내부와 관련되느냐 외부와 관련되느냐에 따라, 또 진행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와 관련된 시간 부사라도 그 내부 시간이 유한적인 것이냐 무한한 것이냐에 따라 ‘-는 중이다’와 ‘-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셋째, ‘-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부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12) 가. 미자가 그림을 안 그리고 있다.

나. ??미자가 그림을 안 그리는 중이다.

예에서 보듯이 ‘-고 있다’와는 달리 ‘-는 중이다’는 부정에서 제약을 받는

다. (12가)에서 부정소 ‘안’은 진행 사태 즉, ‘그리고 있다’를 부정한다. 그러나 (12나)에서도 ‘안’이 진행 사태 ‘그리는 중이다’를 부정한다고 볼 경우는 수용성이 떨어진다. ‘-고 있다’ 진행형인 (12가)를 장형 부정문으로 바꾸어도 단형 부정과 마찬가지로 적격하나 (12나)에서 ‘-는 중이다’는 계사 구문 형식이므로 구조상 장형 부정이 되지 못한다. 만일 이를 명사문 부정 형식 ‘미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로 바꾸면 적격한 문장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당연히 ‘-지 않다’와 같은 장형 부정 형식과는 기능이 다른 문장이다.⁹⁾

넷째, ‘-고 있다’와는 달리 ‘-는 중이다’는 일시성을 나타낸다.

- (13) 가. 이로는 서울에 살고 있다.
나. 이로는 서울에 사는 중이다.

‘-고 있다’는 ‘서울’에 사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임을 함축한다. 그러나 ‘-는 중이다’는 ‘서울’에 사는 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다른 예문을 더 보기로 한다.

- (14) 가. 저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나. 저는 그 회사에 다니는 중이에요.

‘-고 있다’가 쓰인 (14가)는 회사에 다니는 것이 적어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그 회사를 그만 나갈 수도 있다는 함축적 의미는 갖지 않는다. 그러나 ‘-는 중이다’가 쓰인 (14나)는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9) 물론 이와 같은 서술어 부정이 아닌 외적 부정형식 즉, ‘It is not the case that-’과 같은 형식도 진리조건은 서술어 부정과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화용상으로는 서술어 부정과는 차이가 있다. ‘미자가 왔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미자가 안 왔어’와 ‘미자가 온 게 아니야’는 대답으로서 적격성이 다르다. 후자는 청자가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화자가 믿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V -는 중이다’ 진행형은 단형 부정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며 계속해서 그 회사에 다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섯째, ‘-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주어의 선택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 (15) 가. 태양이 빛나고 있다/??빛나는 중이다.
 나. 달이 지구를 돌고 있다/??도는 중이다.
 다. 강물이 흐르고 있다/??흐르는 중이다.

위 예문에서 ‘-고 있다’는 적격하지만 ‘-는 중이다’는 수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들 예문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어가 무정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는 중이다’ 구문은 무정물 주어에서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¹⁰⁾ 그러나 ‘-는 중이다’가 항상 무정물 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16) 가. 물이 끓고 있는 중이다.
 나. 파도가 심하게 치는 중이다.

(16)에서는 무정물 주어인데도 ‘-는 중이다’ 구문이 가능하다. 따라서 (16)에서 ‘-는 중이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주어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는 중이다’ 구문에서 무정물 주어 문장이 제약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문장의 부자연스러움이 무정물 주어와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관련인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여섯째, ‘-고 있다’는 결과상태(resultative)를 나타낼 수 있으나 ‘-는 중이다’는 결과상태 표현에서 자연스럽지 않다.

- (17) 가. 기수가 모자를 쓰고 있다/?쓰는 중이다. (결과 지속의 의미로)
 나. 미옥이는 시계를 차고 있다/?차는 중이다. (")
 다. 수연이가 양말을 신고 있다/?신는 중이다. (")

10) 고영근(1980: 46)에서는 사람이 동작주로 상정되거나 나타날 때 ‘-는 중이다’ 구문이 쓰인다고 보고 있다.

‘-고 있다’는 진행 외에 결과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는 중이다’ 구문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지만 ‘-는 중이다’ 구문이 결과상태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 (18) 가. 철수가 빨간 모자를 쓰는 중이다.
 나. 미옥이가 롤렉스 시계를 차는 중이다.
 다. 수영이가 목이 긴 양말을 신는 중이다.

위에서 보듯이 목적어가 특정화되면 ‘-는 중이다’도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철수가 착용하는 것이 ‘빨간 모자’, ‘롤렉스 시계’, ‘목이 긴 양말’로 특정화되면 ‘-는 중이다’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밝혀야 할 것은 특정화된 경우에 ‘-는 중이다’ 구문이 가능한 이유이다.

2.3. 두 가지 진행상의 문법화와 상적 특징

Bybee 외(1994 : 136)에서는 진행상 구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어가 어떤 것을 하는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진행상이 주어진 시간의 상태 개념과 행동의 계속(ongoingness) 개념의 중복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성하 1996 : 91). Dahl(1985)에 의하면 범언어적으로 진행상의 95%가 우언적으로(periphrastically) 표현된다고 한다. 국어의 진행상도 우언적 구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두 진행상 형식이 시간 상태의 개념과 행동의 계속 개념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국어 진행상 형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3.1. ‘-고 있다’의 문법화

‘-고 있다’는 접속어미 ‘-고’와 존재 동사 ‘있다’가 결합된 우언적 형식이다. ‘-고’가 접속어미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 있다’ 진행형 형식은 본질적으로는 접속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고’는 본질적으로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단순히 나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문맥에 따라 동시적 나열과 계기적 나열이 된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 (19) 가. 학생들이 떠들고 논다.
 나. 학생들이 떠들고 (e) 논다
 (20) 가. 아이가 자고 논다.
 나. 아이가 자고 (e) 논다.

(19, 20)의 (가)는 본질적으로는 (나)와 같은 후행절에 영 주어를 가진 접속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는 동시 나열과 계기 나열이 모두 가능하나 (20)은 화용상 동시나열은 불가능하다. (19)가 동시적으로 해석될 때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의 양태(manner)로 인식되어 ‘떠들면서(떠드는 상태로) 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원리가 ‘-고 있다’ 진행상 형식의 기본적인 형성 원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고 있다’가 진행상 형식으로 기능하는 원리를 밝히기 위해 Heine (1993 : 31)에서 제시하는 사건 도식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시제와 상의 조동사 범주가 모두 사건 도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고 조동사가 발전되어 나온 사건 도식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19)의 예를 통해 ‘-고 있다’의 문법화를 양태(manner)의 사건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고’ 접속문의 후행 동사로서 존재 동사 ‘있다’가 오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 (21) 주희가 밥을 먹고 (e) 집에 있다.

‘있다’는 (21)에서 소재를 나타내는데 이는 상태 동사로서 그 속성상 선행 동사와 바로 인접해서는 접속문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21)에서와 같이 ‘있다’가 쓰인 기본적인 접속문 형식은 술어 ‘있다’가 소재를 나타낼 때 요구하는 장소의 논항이 나타나야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¹¹⁾ 또한 이 경

우 접속문 형식이므로 영 주어(英主어)를 포함한다. 이 때 술어 '있다'가 소재를 나타낼 때¹²⁾ 요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필수 논항 '집에'가 문맥 정보에 의해 생략되면 (22)가 된다.¹³⁾

(22) 주희가 밥을 먹고 (e) 있다.

그런데 (22)에서 영 주어(英主어)로 나타난 주어는 선행절 주어와 동일한 인물이지만, 주어에 일어난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확히 말한다면 밥을 먹은 행위를 수행하기 전 선행절 주어와는 다르다. 후행절의 주어는 밥을 먹은 행동을 경험한 주어이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우리는 V1의 행동(실제로 'V1과 관련된 행동'이지만 편의상 'V1의 행동'으로 나타냄)을 경험한 주어를 고려하여 영 주어를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1) '있다'는 장소의 논항이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예 : 신은 있다. UFO는 있다.)
 - 12) '있다'가 '소재'를 나타낸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내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13) 위 (22)처럼 후행절에 공주어가 설정될 경우에 그 성립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구문이 가능하다.

가. 미자는 밥을 먹고 (그냥) 있다.

나. 동수가 편지를 읽고 (멍하니) 있다.

위에서 '있다'는 후행절에서 본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5세기 문헌 <석보상절>에도 이런 예가 보인다(이성하 1996 : 100 참고). 다만 위의 예에서는 '-고'가 동시가 아니라, 계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 있다'의 계기 혹은 동시의 의미가 아니고 '-고 있다'가 존재사로 후행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 문법화는 인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원적으로 (22)와 같은 구조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같은 구문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14) 이를테면 선행절의 주어는 배고픈 '철수'였다면 후행절의 주어는 그렇지 않은 주어인 것이다.

(23) 철수가 밥을 먹고 {*E_i, E_{ij}} 있다.

즉, 지시 대상과 관련하여 후행절 주어는 밥을 먹기 전 주어가 아니라 밥을 먹는 행동을 경험한 주어라고 할 때, 엄격히 말하면 영 주어는 E_i로 표시되기 보다는 밥(j)의 변화된 지시적 속성을 지닌 주어(E_{ij})로 표시된다고 할 수 있다.¹⁵⁾ 후행절 주어를 이처럼 V1의 행동을 수행한 주어로 설정할 때 이런 주어를 가진 후행절의 소재를 나타내는 술어 '있다'는 V1의 성격을 가진 주어와 관련을 맺으므로 '있다'는 간접적으로 V1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사의 행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부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V1이 양태라면 V1의 의미 자질이 V2에 투영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V1 -고 있다' 구문에서 V1이 양태를 나타낸다고 볼 때 'V -고 있다' 구문이 진행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고 있다'에서는 '있다'가 상태 지속성 술어이므로 V1의 동작이 '있다'에 대해 양태적으로 수식하게 되면 V1의 동작이 '있다'에 투영되는바, 이는 V1의 의미 속성이 '있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고 있다'에서 V1의 의미 속성이 '있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고 있다' 구성의 경우는 다른 양태적 수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양태적 수식 관계에서는 양태적 수식어의 의미자질이 피수식어에 단순히 투영될 뿐 피수식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V1 -고 있다'에서 '있다'에 V1의 의미자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태적 수식 관계인 '-고 있다' 구조에서 '-고 있다'가 접속문 구조라는 점과, 피수식어가 '있다'라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 있다'의 구조에서 영 주어를 설정했는바, 이 주

15) E_{ij}에서 이탤릭체 지표 j는 지시의 대상 '밥'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 주어가 j로 표시된 지시대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16) 양태부사 '빨리'가 '달린다'를 수식하는 '빨리 달린다'를 예로 들면 이 표현이 행동으로 구현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달리는 모습을 보고 '빠른 모습'을 인식한다. 즉 양태부사의 의미 속성이 동사의 행위에 투영되는 것이다.

어는 V1의 의미적 속성을 지닌 Eij였다. 따라서 이 Eij가 바로 잠재적인 '있다'의 주어이기 때문에 이 주어와 의미 관계를 맺는 '있다'에 V1의 의미 속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접속구성 '-고 있다'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특별한 양태 수식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여기서 문제는 V1의 의미 속성이 V2 '있다'에 존재하게 된다고 할 때 어떤 원리로 이것이 진행상으로 해석되는가이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는 바로 '있다'의 상태지속성이라는 의미적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V1의 의미 속성 즉 '동작'이 '있다'의 상태지속적 의미에 존재하게 되면(중복되면) 이는 '있다'의 상태지속성으로 인하여 지속되는 동작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이 구성은 진행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Heine (1993)의 사건 도식 'X가 Y방식으로 머물다'(X stays in Y manner)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국어에서 '-고 있다' 진행상은 주어가 상태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있다'에 V1의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머물다는 원리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 있다' 구성에서 영 주어는 Eij로 설정 되는데 이는 '있다'에 양태적으로 기능하는 의미 속성을 지표(j)로 지니고 있으며 이 때 존재 동사 '있다'는 '머물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 '-고 있다' 구성은 '주어(X)가 V1(Y)의 방식으로 머물다'라는 사건 도식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지 과정으로 인한 '-고 있다' 진행상 표시 기능의 획득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문법화로 이해할 수 있다.¹⁸⁾

17) 일반적인 양태적 수식 관계에서는 피수식어의 수식어의 의미 자질이 투영되는 것이지 피수식어 자체의 양태적 수식어 자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양태 수식어의 의미 자질은 피수식어와 분리되어 존재하고 양태적 속성이 다만 피수식어에 비취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피수식어에서 양태 수식어의 의미자질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V -고 있다'에서는 '있다'의 상태지속성과 자질 변화를 입은 영 주어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V1과 관계된 자질이 '있다'에 존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8) 많은 언어에서 존재동사는 미완상과 같은 문법표지로 발달하였다(이성하 1998 : 313-314). 진행상의 근원 스키마는 장소, 행동, 균등화, 태도, 발생, 연속성 등이 있다(Heine 1994).

2.3.2. '-는 중이다'의 문법화

'-는 중이다' 구성에서 '중'은 한자어 '中'으로 분석된다.¹⁹⁾ 즉 이 구성은 '-는+中(가운데)+이다'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면 '중'이 명사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표면적으로 이는 관형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성은 통사적 구성 자체로는 진행의 형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구성이 어떤 원리에 의해 진행상을 나타내는 형식이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문제다.

'-는 중이다'와 형식은 다르지만 상적 기능이 유사성을 지니는 구조가 있는데 '-는 중에 있다'가 그것이다. 이 형식은 통사적 구성이지만 그 자체로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 '-는 중에 있다'가 통사구조 자체로서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범언어적 현상에 기초하고 있다.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Heine(1993 : 31)는 시제 및 상을 나타내는 사건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는 중이다' 진행상 형식은 이 사건 도식 중 장소/처소(location)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도식의 인식형태는 'X is at Y'이다. Heine(1993)에서는 Y가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형)일 경우 'X is at Y'(X가 Y에 있다)가 'X가 Y를 하고 있다/하는 중에 있다'의 진행상으로 이해되며 이 형식이 진행상으로 문법화된다고 본다.

이런 견해와 '-는 중이다' 형식이 통사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는 중이다'의 형식은 그 기원적인 형식이 '-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는 중에 있다' 형식이 어떤 인식 과정을 거쳐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예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4) 철수가 가는 중에 있다.

이 문장은 관형절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머리명사 '중'을 수식하는 구성이다. 여기서 '중'은 추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장소/처소를 나타낸다. 따라

19) 고영근(1980)에서 '중'을 한자어 '中'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 (24)와 같은 ‘-는 중에 있다’ 문장형은 ‘X가 Y에 있다’(X is at Y)는 장소의 도식에 완전히 부합한다. 수식 구조의 속성을 고려할 때,²⁰⁾ 추상 공간의 ‘중’은 관형절이 나타내는 사태의 수식을 받으므로 ‘중’에는 수식어의 의미 속성이 투영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는 중’은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포함한 처소/장소로 이해된다. 따라서 ‘-는 중이다’ 구문은 동작을 수행하는 주어가 이 동작을 포함하는 장소 안에 ‘있다(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있다’의 지속적인 상태 속성을 고려하면 이는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이 지속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결국 진행상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는 중에 있다’가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는 통사 구조상에서의 해석이다. 문제는 ‘-는 중에 있다’와 형태적으로 다르며 통사론적 구성으로 분석되지 않는 형태론적 구성인 진행상 형식 ‘-는 중이다’가 어떻게 관련되는가이다. 우리는 기능적 동일성과 형태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는 중이다’가 ‘-는 중에 있다’에서 기원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¹⁾

일상 구어에서 처소 표현의 ‘있다’가 생략되는 경우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 (25) A : 너 어디에 있니?
 B : 나 학교(에) 있어.
 B' : 나 학교야.

구어상에서는 위 A의 질문에 대해 B로 대답하지 않고 B'처럼 대답할 수 있다. 이는 ‘있다’를 생략하고 장소만으로 주어가 소재하는 처소를 나타낸 것이다. 위의 생략 구조가 가능한 것은 문맥 때문이다. 주어의 존재가 전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재동사 ‘있다’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략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때, ‘-는 중이다’ 구문의 형성도 이런 생략 방식과 관

20) 수식구조에서 수식을 받는 머리어는 인지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식어의 속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쁜 꽃’으로 표현되는 대상인 ‘꽃’을 보면 그 ‘꽃’에서 ‘예쁘다’의 의미 속성을 인식할 수 있고 ‘느리게 걷다’로 표현되는 동작인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동작에서 ‘느리다’라는 속성을 인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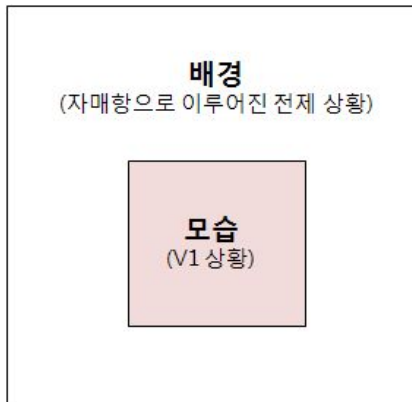
21) ‘-는 중이다’ 형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한다.

련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사적인 구성인 ‘-는 중에 있다’에서 ‘있다’가 생략되고 ‘-중이다’로 표현되는 것은 위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서 정당성이 뒷받침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특성상 (25B’)과 같은 원리에 의한 축약은 잠정적인 현상에 불과하지만 ‘-는 중이다’의 축약 형식은 하나의 형태 단위로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는 중이다’가 ‘-는 중에 있다’ 형에서 굳어졌지만 이는 잠정적인 축약형이 아니라 ‘-는 중에 있다’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문법 형태로 굳어진 것이다. ‘-는 중이다’는 통사적인 구조로 분석이 되지 않으므로, ‘-는 중에 있다’ 구조에서는 진행의 의미가 통사 구조에서 해석되는 것이었지만 ‘-는 중이다’는 통사적인 합성성의 원리에 의한 진행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는 중이다’ 형이 축약형으로서 ‘-는 중에 있다’와 같이 동일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는 중이다’의 ‘중’에 수식어인 선행 동사의 동작의 의미 속성이 투영되는바, ‘중’이 시간의 폭을 지닌 추상 공간이므로 동작을 수행하는 주어가 추상적 시간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는 중에 있다’와 같이 주어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있다’가 결합되지 않은 형식 ‘-는 중이다’만으로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수행하는 주어가 추상 공간 안에 존재함을 암시할 수 있다. 그 결과 ‘-는 중이다’는 진행의 문법형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즉 이 축약 형식은 문법화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²²⁾²³⁾ 요컨대 ‘-는 중이다’의 진행상 형식은 ‘X가 Y에 있다’라는 장소의 사건 도식에 기초하여 문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2) 아직 연구가 미진하여 ‘-는 중이다’가 중어나 근대 국어에서 어떻게 진행상 표지로 발전해 왔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는 중이다’가 통사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상 표지로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 고영근(2004 : 417)에서는 <인현왕후전>에 동사성 명사에 ‘중’이 결합된 예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후고를 기대한다.

23) 물론 ‘-는 중이다’ 형의 생성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로 한다. 중요한 것은 ‘-는 중이다’ 형식이 ‘-는 중에 있다’에 의미적, 형태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장소 도식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는 중이다’는 같은 진행상 형식 ‘-고 있다’ 진행상 형식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법화된 형식의 결과적인 문법 특성이 그 어원어의 의미에서 기인한다는 어원결정가설을 고려하면 ‘-고 있다’와 ‘-는 중이다’ 구문의 의미 기능적 특성도 그 구성 요소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의미 기능상의 차이도 바로 이들 구성 요소의 어원적 의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는 중이다’에서 ‘中’은 시간적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체 가운데서 한 부분을 나타내므로 전체를 이루는 다른 부분이 전제된다. 또한 진행상 ‘-는 중이다’도 언급되는 사건의 시간적 공간 외에 다른 사건의 시간적 공간(이를 자매항 사건의 시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아이가 자는 중이다’는 아이가 ‘자는 시간적 공간’ 외에 ‘깨어 있는 시간적 공간’, ‘우는 시간적 공간’, ‘젓을 먹는 시간적 공간’ 등 다른 많은 자매 사건의 시간적 공간을 전제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의 다른 부분을 전제하는 어원적 의미가 진행형 형식 ‘-는 중이다’의 의미 특성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는 중이다’ 구문에서 언급되는 진행 사건은 다른 자매항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드러난다는 점에서 모습(figure)으로 볼 수 있고 전제된 사건들은 배경(ground)으로 볼 수 있다.²⁴⁾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4) 모습(figure)과 배경(ground)에 대해서는 이기우 외 역(1997) 참고.

여기서 ‘-는 중이다’ 진행 형식은 그것이 표현하는 진행 상황의 배경으로 전제되는 상황 시간으로 인해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두드러지게 되는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 있다’는 ‘있다’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진행되는 사건을 존재적으로 부각시켜 현존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형식은 다른 상황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앞서 제시된 ‘-는 중이다’ 구문과 ‘-고 있다’ 구문의 차이는 ‘-는 중이다’의 다른 상황을 자매항으로 전제하는 기능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²⁵⁾

2.4. 두 진행상 형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물론 이들 형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요소들의 어원적 의미에서 기인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들 차이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앞서 제시되었던 두 진행상 형식의 의미적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4.1. 시간 부사어 제약

‘-는 중이다’는 ‘-고 있다’와는 달리 시간 관련 부사의 출현에 제약을 보인다.

- (26) 가. 누나는 항상/늘/언제나 라디오를 듣고 있다/?듣는 중이다.
나. 진호가 끝없이/끝까지 진주를 괴롭히고 있었다/?괴롭히는 중이다.

‘-는 중이다’ 형식이 ‘중’의 어원적 의미에 기인하여 이것이 표현하는 상황 외에 다른 자매 상황을 전제한다고 할 때, 이 자매 상황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위의 문장에 나타난 부사어들이 ‘-는 중이다’ 구문에서 부적절한 이유가 설명된다. ‘-는 중이다’는 주어와 관련된 다른 시간 관련

25) 진행상 ‘-고 있다’와 ‘-는 중이다’ 형식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매항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간상으로도 이 자매항이 실현될 수 있는 가상의 시간대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26가)의 경우 ‘항상/늘/언제나’는 주어의 행동과 관련된 상황의 시간 구조 전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표현된 상황이 전체 시간대를 차지함을 나타내는 이들 부사가 쓰임으로써 다른 자매 상황에 요구되는 시간적 공간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 부사가 쓰이면 이 문장의 수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끝없이’, ‘끝까지’가 쓰인 (26나)가 쓰인 문장도 ‘-고 있다’와 달리 ‘-는 중에 있다’에서 제약되는데, 그 이유는 (26가)와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 ‘끝없이’, ‘끝까지’가 표현되는 사건의 시간대뿐 아니라 담화 상황에 주어진 상황의 전체 시간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²⁶⁾

2.4.2. 일시성과 지속성의 차이

‘-는 중이다’가 ‘-고 있다’와는 달리 일시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것은 역시 ‘-는 중이다’가 시간과 관련된 배경을 지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앞의 예를 다시 보기로 한다.

- (13) 가. 이로는 서울에 살고 있다.
나. 이로는 서울에 사는 중이다.

(13나)의 경우 ‘-는 중이다’가 전제하는 자매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에 사는 시간적 공간’은 배경을 이루는 여러 자매 사건의 시간적 공간 중의 하나

26) ‘-고 있다’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미워하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슬퍼하다’ 등과 같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는 중이다’는 이들 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이는 ‘-는 중이다’는 ‘-고 있다’와는 달리 표현되는 상황의 자매 상황이 전제된다고 했는 바, 이들 심리 동사가 쓰인 경우는 자매 상황도 대응되는 심리동사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자가 경희를 미워하는 중이다’가 성립한다면 이는 좋아하는 상황, 싫어하는 상황, 감정적으로 무관심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런 자매항의 설정은 화용론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는 중이다’는 위의 동사들과 통합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일 뿐이다. 따라서 ‘-는 중이다’ 구문은 일시적인 거주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고 있다’는 언어 형식상으로는 자매 상황이 설정되지 않으므로 일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2.4.3. 주어 제약

‘-는 중이다’ 구문은 ‘-고 있다’ 구문과는 달리 무정물 주어에서의 제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 (15)를 보기로 한다.

- (15) 가. 태양이 빛나고 있다/??빛나는 중이다.
 나. 달이 지구를 돌고 있다/??도는 중이다.
 다. 강물이 흐르고 있다/??흐르는 중이다.

‘-는 중이다’ 구문에서 무정물 주어보다 인간 주어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능동적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의 특성이 역동적일 수 있다. 즉, 인간은 의지가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행위를 제약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다. 이는 ‘-는 중이다’ 구문에 인간 주어가 쓰일 경우 다른 자매항 상황이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주어가 능동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간이므로 현재 문제되는 주어의 행동 외에 주어의 다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정물의 경우는 무의지적이고 비활동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이것이 주어로 쓰일 경우 이 무정물 주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자매항 사건이 설정되기 어렵다. 예컨대 태양이 빛나는 사건은 이에 대응되는 자매항 사건으로서 화용론적으로 ‘태양이 희미해지는 사건’이나 ‘태양이 쉬는 사건’ 등이 설정되기가 화용론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무정물 주어가 ‘-는 중이다’ 구문에 제약되는 것은 바로 자매항 사건의 설정이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유정물의 경우도 그것의 활동적 역동성과 관련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식상의 역동성이 제한되므로 ‘-는 중이다’가 요구하는 다른 활동의 배경이 되는 자매 상황의 설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인간

이외의 유정물 주어도 ‘-는 중이다’ 구문에서 주어로 쓰이는 데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 주어가 아니어도 주어의 활동과 관련된 자매항이 가정될 수 있으면 ‘-는 중이다’ 구문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는 중이다’ 구문에서 비인간 주어가 제약되는 것은 비인간 주어에 대한 우리의 화용론적 지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4.4. 결과상태 제약

‘-는 중이다’ 구문의 결과상태(결과지속) 제약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 (27) 가. 이로가 시계를 차고 있다/?차는 중이다. (결과상태의 의미로)
나. 근수가 양말을 신고 있다/?신는 중이다. (결과상태의 의미로)

‘-고 있다’ 진행상은 동사에 따라 결과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는 중이다’ 형식은 결과상태에서 ‘-고 있다’에 비해 자연스럽게 않다. 결과상태는 선행 동사의 행위의 수행으로 결과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일 ‘-는 중이다’가 결과상태 구문에서 쓰인다면 ‘-는 중이다’가 자매 상황을 전제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결과 상태가 가정된다. 즉, ‘양말을 신는’ 행위를 수행한 뒤의 결과상태의 자매항으로는 ‘옷을 벗는’ 행위를 수행한 뒤의 결과상태, ‘화장을 하는’ 행위를 수행한 뒤의 결과상태 등이 자매항으로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매 상황의 설정은 화용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는 중이다’ 구문은 결과상태에서 제약되는 것이다.

그러나 ‘-는 중이다’ 구문이 결과상태에서 항상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 (28) 가. 이 선생이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다/는 중이다.

이 경우는 ‘-는 중이다’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해석이 가능하다. ‘-는 중이다’ 구문이 결과상태에서 제약되는 이유가 자매 상황 설정 때문이라고 볼 때, ‘-는 중이다’가 쓰인 이 문장이 수용 가능한 이유는 자매항 설정에 문제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빨간 넥타이’를 맨 뒤의 결과 상태 상황의 자매항으로 다른 색깔(노랑, 파랑, 검정 등)의 넥타이를 매는 행위를 수행한 후 결과 상태가 화용상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있다.²⁷⁾ 따라서 이 경우는 ‘-는 중이다’가 결과상태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²⁸⁾

2.4.5. 부정문에서의 제약

부정문에서 제약되는 앞에 든 ‘-는 중이다’ 구문을 다시 보자.

- (12) 가. 미자가 그림을 안 그리고 있다.
나. *미자가 그림을 안 그리는 중이다.

‘-는 중이다’가 단형 부정문에서 제약을 받는 것도 ‘-는 중이다’의 배경 전제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부정 상황은 비활성적이며 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는 중이다’ 구문에서 가정되는 부정문에서 언급되는 상황의 배경이 되는 자매항 상황 역시 부정의 상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용론적으로 이런 부정 상황을 배경 상황으로 가정하는 것은 생각되기 어렵다. 이는 존재론적으로 비행동, 비사건을 언급하는 부정문은 행동, 사건이 배경으로 설정될 때 쓰인다는 사실과 관련된다(Givón 1979). (12나)는 ‘-는 중이다’의 자매항 전제 기능으로 인하여 ‘그림을 안 그리는 상황’의 자매 상황으로 ‘글씨를 안 쓰는 상황’, ‘화장을 안 하는 상황’, ‘편지를 안 쓰는 상황’ 등이 자매항 사건으로 가정되어야 할 것이다. 긍정 사건은 부정 사태를 배경으로 한다는 부정의 존재론적 속성상 이런 자매항 설정은 용인되기 어렵다. 따라서 ‘-는 중이다’ 부정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27) 이 경우 ‘-는 중이다’는 넥타이를 매는 행위의 계속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행과는 다른 것이지만 ‘-고 있다’의 결과상태와는 좀 다른 것이다. ‘-고 있다’에서는 행위의 수행이 선행하고 그 결과가 존재함이 인식되나 ‘-는 중이다’에서는 행위의 수행이라는 선행 동작이 인식되지 않는다.

28) (27)도 ‘요즘은’, ‘지금은’, ‘그때는’과 같이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이런 부사어는 자매항 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2.4.6. 문장 종결법에서의 제약

‘-고 있다’는 표면에 드러난 존재의 현재 상태성을 드러내는 ‘있다’로 인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부각시켜 현존적인 느낌을 드러낸다. 그러나 ‘-는 중이다’ 형식은 상황이 진행되는 시간대가 특정한 영역, 즉 전체 담화 시간대의 일부인 ‘중간’에 한정, 분포된다.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실현되지 않은 장차의 행위이다. 만일 이 서법들이 나타내는 장차 행위가 ‘-는 중이다’ 진행형에서 쓰인다고 보면 ‘-는 중이다’의 특정 시간대를 나타내는 성격 때문에 다른 시간대가 전제되는 특정한 시간대(중간)에서 장차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요청, 청유, 약속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화용상 부자연스럽다. ‘중’은 문제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²⁹⁾ ‘-는 중이다’를 이들 서법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대를 대상으로 명령하고 청유하고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화용상 가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서법에서는 ‘-는 중이다’ 형은 비문이 된다.

한편 이 경우 우리는 단순히 ‘-는 중이다’가 다른 자매 상황을 전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들 문장 종결법에서는 제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문장 종결법에서는 화용론적으로 다른 자매항 상황을 전제하고, 명령하고, 청유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자매항 사건의 설정은 화용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본고에서는 ‘-고 있다’, ‘-는 중이다’가 어떻게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식이 되었는지 논의하고 이 두 형식이 갖는 차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국어에서 진행상의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형식

29) ‘가는 중이다’는 ‘중’ 이외의 시간대가 아닌 ‘중’으로 나타내는 시간대에서 문제의 행위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을 검토하고 진행상의 상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진행상은 일정 시간 동안 동작이 계속됨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국어에서 진행은 ‘-는다’, ‘-고 있다’, ‘-는 중이다’, ‘-어 가/오다’ 등이 나타낼 수 있으나 ‘-는다’, ‘-어 가다/오다’는 비록 진행의 의미 기능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형적인 진행상과는 다른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 있다’, ‘-는 중이다’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에 일정한 시간의 폭을 가지는 진행상은 순간 동사나 인식상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어떤 사태를 수식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등은 제약을 받는다. 본고에서는 ‘-고 있다’와 ‘-는 중이다’의 의미 기능상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형식의 문법화 과정을 논의한 뒤 두 형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되는지를 문법화 원리 기제 중 어원 결정가설로 설명했다.

‘-고 있다’의 문법화 과정은 Heine(1993)가 제시한 조동사의 문법화 도식 중 ‘X stays in a Y manner’라는 인식적 형태를 나타내는 양태(manner) 도식으로 설명되고 ‘-는 중에 있다’는 ‘X is at Y’라는 장소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음이 본고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는 중이다’는 ‘-는 중에 있다’에 기반을 둔 형식으로 보았다.

‘-는 중이다’에서 ‘중’은 ‘가운데’를 의미하는 ‘中’으로서 다른 부분을 전제한다. 이런 어원적 의미가 진행 형태 ‘-는 중이다’ 구성에서도 기능하여 이 형식은 표현되는 상황 이외의 다른 자매 상황을 전제하게 된다. 자매 상황은 배경으로 기능하고 제시되는 상황은 모습이 된다. 따라서 ‘-는 중이다’ 형식은 이런 특성이 없는 ‘-고 있다’ 진행형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제약 현상을 보인다. 즉, ‘-는 중이다’ 구문의 시간 부사어 제약, 주어 제약, 결과상태상 제약, 부정문 제약, 문장 종결법 제약, 일시성 등은 모두 ‘-는 중이다’가 전제하는 다른 자매 상황의 시간대가 V1 동사로 제시되는 상황과 상충되거나 화용론적으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설명되었다.

▶주제어 : 진행상, 문법화, 양태도식, 장소도식, 모습, 배경, 자매항

〈참고문헌〉

- 고영근(1980), 「국어 진행상 형태의 처소론적 해석」, 『어학연구』 16, 41~53쪽.
 _____(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_____(2006), 「동작상에 대한 이해」, 『한국어학』 30, 1~30쪽.
 구종남(2011), 『-어 오다/가다의 직시적 의미와 상적 특징』, 『한국언어문학』
 76, 5~35쪽.
 김종도(1996), 「상 의미의 이중성 연구」, 『담화와 인지』 제3권, 101~129쪽.
 김종도·나익주 역(2003), 『문법과 개념화』, 박이정.
 남기심(1978), 『국어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서정수(1976), 「시상형태의 의미 분석」, 『문법연구』 3, 83~158쪽.
 신수송·최석문(2002), 「국어의 진행상과 결과상 표현에 대하여」, 『국어학』 39,
 77~104쪽.
 양인석(1977), 「Progressive and Perfective Aspect in Korean」, 『언어』 2.1,
 125~140쪽.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_____(2002), 『시상성과 논항 연결』, 태학사.
 _____(2004), 「'-고 있-'과 '-어 있-'의 상보성 여부 검토와 구문 규칙 기술」,
 『한글』 266, 105~137쪽.
 우창현(2003), 『상해석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이기동(1978), 「조동사 '있다'의 의미 연구」, 『눈피 허웅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과학사, 359~387쪽.
 이기우 외 역(1997), 『인지 언어학의 기초』, 한국문화사.
 이남순(1987), 「'에', '에서'와 '-어 있다', '-고 있(다)」, 『국어학』 16, 567~595
 쪽.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수련(2003), 「'있다'의 문법화에 대한 의미·화용적 연구」, 『국어학』 42,
 177~205쪽.

- 이지양(1982), 「현대국어의 시상형태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51.
- 이호승(2001), 「국어의 상 체계와 보조용언의 상적 의미」, 『국어학』 38, 209~239쪽.
- 이홍배 역(1999), 『최소주의 통사이론과 영어』, 한신문화사.
- 임홍빈(1975), 「부정법 {어}와 상태진술의 {고}」, 『논문집』 8(국민대), 13~36쪽.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한동완(2000), 「'-어 있-'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257~288쪽.

Anderson, John M.(1973), *An Essay concerning aspect : Some considerations of a general character arising from the Abbe Darrigol's analysis of the Basque verb*. The Hague Mouton.

Bybee, Joan L., Reb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hl, O.(1985), *Tense and Aspect System*, Oxford : Blackwell.

Grimshaw, J.(1990), *Argument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Givon, Talmy(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Heine, Bernd(1993), "Auxiliaries : Cognitive Forces and Grammaticalization",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eine, Bernd(1994), "Grammaticalization as an Explanatory Parameter", In William Pagliuca(ed), 1994, pp.255~287.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s*, MIT.

Jackendoff, R.(1996), "The proper treatment of measuring out, telicity and perhaps even quantification in Engl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3, pp.305~354.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of English*,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td.

Palmer F. R.(1974), *The English Verb*, Longman.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Rhee Seongha(1996),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 The Development in Korea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Hankuk Publisher.

Rothstein, S.(2001), *Predicates and their Subjec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Smith, Carlota(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Abstract]

The Forms and Peculiarities of Progressive Aspect in Korean

Koo, Jong-nam

This paper has two purposes : One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wo Korean progressive markers ‘-go itta’(-고 있다), ‘-neun joongida’(-는 중이다), the other is to illuminate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two progressive form, and to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orms by ‘-neun joongida’ construction’s property triggering the sister-member situations which is due to the etymological meaning of ‘jong’(middle). The two progressive aspect forms differ in allowing time adverb, in negative sentences, and in resultative aspects etc. I discussed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two types. ‘-Go itta’ was grammaticalized by the manner schema(X stays in Y manner), and ‘-neun joongida’ was grammaticalized by the locative schema(X is at Y). The meanings of grammaticalized forms are affected by the etymology of elements of the form. ‘Joong’(middle) in the ‘-neun joongida’ construction presupposes the other parts which are not middle pragmatically. Therefore in ‘-neun joongida’ progressive form presupposes the other situations which are the sister members of it, so in ‘-neun joongida’ sentences the V1 situations functions as figure and it’s sister-members function as ground. Resultantly al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gressive form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s that the later presupposes the sister-members which has time span in the whole situation as ground.

【Key words】 : progressive aspect, grammaticalization, manner/location schema figure, ground, sister-members

구종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561-756)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jnkoo@chonbuk.ac.kr

이 논문은 2013년 4월 25일에 투고 되었으며, 2013년 5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